

**LG전자** ‘8K TV’ 놓고 정면 충돌

**SAMSUNG**  
삼성전자

# “화질선명도 등 LG 월등” vs “소모적 논쟁, 시장 키워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신 TV의 해상도 기술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두 회사는 앞서 이달 초에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IT 전시회 ‘IFA 2019’에서 한차례 ‘원정 기싸움’을 벌인 바 있다. 이번에는 국내에서 같은 날 언론 설명회를 통해 상대방의 기술을 깎아내린 것이다.

17일 LG전자는 서울 여의도 LG트 윈타워에서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를 열고 8K 해상도 및 올레드 관련 기술에 대해 집중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LG전자 HE연구소장 남호준 전무는 “삼성전자의 QLED 8K TV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제디스플레이계측위원회(ICDM)의 해상도 규격에 한참 못 미친다. 이는 8K의 해상도를 기대하면서 8K TV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며 소비자에게 실망감을 줄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QLED 8K TV가 진정한 8K TV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LG전자는 이날 해상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TV 패널 구조를 직접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을 통해 자사의 8K TV가 삼성이 말하는 8K TV 보다 화질, 구조 등에서 월등하다고 주장했다.

ICDM의 표준규격에 따르면 해상도는 화소 수와 구분돼야 하고, 화소 수는 물론 화질선명도(CM)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진정한 8K TV라는 것이다. ICDM은 2012년부터 모든 디스플레이에 대한 해상도 측정법으로 화질선명도를 활용하고 있다.

ICDM은 해상도를 판단하는 측정 기준으로 화질선명도 값을 정의하고 화질선명도 50% 이상을 해상도 충족 조건



LG전자 HE연구소장 남호준 전무가 패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판매중인 QLED TV에 적용된 퀸텀닷 시트를 들고 있다. /구서윤 기자

## LG전자

국제적 CM 규격에 한참 못미쳐  
현혹된 소비자에 실망 안길 것

으로 명시하고 있다. 화질선명도가 50%는 넘어야 사람이 눈으로 직접 봤을 때 인접한 화소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화질선명도는 디스플레이가 흰색과 검은색을 대비해 얼마나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값으로, 흰색과 검정색을 각각 명확하게 표현할수록 화질선명도 값이 커진다.

8K TV는 화소 수가 가로 7680개, 세로 4320개로 총 3300만개 화소 수는 물론 화질선명도 5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화질선명도가 50% 미만인 경우 화소 수가 8K에 해당하더라도 해상도는 8K라고 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LG전자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L

G전자의 8K TV(모델명: 75SM99)의 화질선명도는 90%인 반면 삼성전자의 QLED 8K TV(모델명: QN75Q950)의 화질선명도는 12%에 불과하다.

지금까지의 제품들은 픽셀 수를 해상도와 동일시해서 표현해도 화질선명도가 50%를 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출시된 몇몇 8K 제품은 픽셀 개수와 해상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우려가 커진다고 LG전자 측은 주장했다.

남전무는 “경쟁사(삼성전자)의 행보는 TV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엔지니어 관점에서 안타깝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TV 시장에서 8K 시장을 주도하고 싶다면 모델만 늘릴 게 아니라 국제적 규격에 맞는 TV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이날 서울 R&D 캠퍼스에서 8K 화질 관련 긴급 설명회를 열고 8K TV 시장을 본격화하겠다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가 삼성 8K TV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 삼성전자

CM으로 성능 판단은 적절치 않아  
시스템 부분도 최적으로 조합돼야

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는 “8K 화질은 CM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밝기와 컬러볼륨 등 다른 광학적인 요소와 화질 처리 기술 등 시스템적인 부분이 최적으로 조합돼야 한다”며 “기준 정립을 위한 관련 업체 간 협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LG전자가 지적한 CM이 8K TV의 성능을 지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용 상무는 ‘LG가 지적한 CM값에 대한 수치가 맞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CM은 화질 척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CM값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8K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서 CM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8K 협회’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미래 시장을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QLED 8K를 타사 제품과 비교시연하며 8K 이미지, 동영상, 스트리밍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독보적인 화질을 구현하고 있음을 시연했다. 8K 이미지 파일을 USB에 옮겨 TV에 띄운 결과, 삼성 QLED 8K에서는 작은 글씨도 선명하게 보이는 반면, 타사 TV에서는 글씨가 뭉개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동영상 시연에서는 표준코덱(H.265)으로 인코딩된 8K 동영상 시연에서 삼성 QLED 8K는 USB로 연결한 영상이든 스트리밍 영상이든 원활하게 재생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확진… 삼겹살 금값되나

확산 여부 따라 공급량 급감 우려  
중국은 돼지고기 가격 40% 급등  
외식·유통가 전국 확산 노심초사

당국 “병 걸린 돼지는 유통 안돼  
국산 돼지고기 안전” 소비 당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면서 돼지고기 파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유통·외식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물량 확보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매출 직격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다섯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에 따라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개 농장에서 3950두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했다.



서울 한 시내의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 /뉴스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열병의 한 종류로 돼지가 감염될 경우 고열이나 식욕 결핍 등을 일으키는 동물 질으로,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이다. 국내에서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된 감염원은 남은 음식물 특히 항공기나 선박의 주방 등에서 유래한 음식물 쓰레기다. 국제적으로 오염된 돼지고기를 포함한 음식찌꺼기를 돼지에게 주는 것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4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생긴 이후 돼지고깃값이 40% 넘게 오르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고기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국내 발병이 확인되면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외식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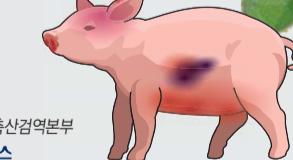
중국 전역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란?

- 돼지와 아생 멧돼지에 발생하는 치명적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
- 전파성 강하고 증상 심각, 치사율 높음 (급성 감염 돼지 거의 100% 폐사)
- 현재 치료제 백신 없음 ■ 사람 감염 안됨

### 발생 원인

-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 아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
- 농장관계자의 발병국 해외여행



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

연합뉴스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외식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서울 종로에서 삼겹살을 판매하는 음식점 주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고 해 걱정이 크다”며 “돼지고기를 찾는 손님이 줄어들고,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까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왔다는 뉴스를 접하고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언제에 무해화 하지만 돼지고기를 먹는 것도 조심스럽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산 돼지고기는 안전하다며 소비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라면서 “이 병에 걸린 돼지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은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백인웅 기자 parkiu7854@